

“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않는 방향 조율”

산케이 “한국 ‘합의’ 발표에 항의” 마이니치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

일본 정부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공식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8일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오는 20~21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일본 측은 이런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외무성이 “신뢰 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달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일본 측은 이른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 진전이 없는 채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에 신중하다”면서 유엔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행렬 영국 시민들이 15일(현지시간) 런던 타워 브리지 인근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로 입장하는 추모 대기 줄에서 있다. 이날 런던에 조문객 행렬은 7km에 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부 내에선 ‘사실무근’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실현되더라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전세계를 타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뉴욕으로 출발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유엔 개혁을 호소할 방침이다.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의 영향으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60세 ‘프랑스 스파이더맨’ 48층 빌딩 외벽 타고 올라

‘프랑스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고층 건물 등반가 알랭 로베르(60)가 17일(현지시간) 파리의 48층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환갑의 나이에 젊은이도 힘든 건물 등반에 성공하며 나이는 마음먹기 따라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줬다.

세계 각지 고층 빌딩들을 정복했던 그는 이날 스파이더맨처럼 붉은색 옷을 입고 파리의 라데팡스 상업지구를 굽어보는 높이 187m의 ‘투르토탈’ 빌딩에 올랐다.

지난달 60세 생일을 맞은 그는 “사람들에게 60세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 나이에도 스포츠를 활발하게 즐길 수 있고,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정년을 상징하는 나이인 60세가 되면 이 빌딩을 다시 오를 결심을 했다”면서 “꽤 괜찮은 생각이었”고 자평했다.

그는 빌딩을 오르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인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각시키기 위해 등반한다고 밝혔다. 앞서서도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빌딩에 오르기도 했다는 그는 이 건물을 이전에도 여러 번 오른 적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홍수 사망 1,500명 “어린이 1,600만명 피해”

최악의 몬순 우기를 보내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고 파키스탄 당국이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국가재난 관리국은 지난 6월 14일 이후 이번 홍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1,545명, 부상자가 1만2,850명이라고 밝혔다.

세바즈 샤리프 총리는 홍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과 담요를 기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비정부기구(NGO)나 군, 지방 당국이 설치한 센터로 기부하면 된다”며 “모든 사람이 나서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특히 많은 어린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압둘라 파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파키스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홍수로 1,600만명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최소 340만명이 긴급한 구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들이 식수나 음식도 없이 손상된 건물이나 야외에서 살고 있으며 학교와 수도 시스템, 보건 시설 등 아이들이 의지하는 중요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원조가 없다면 더 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포리자 원전 주 전력선 1개 복구

원전 냉각 시스템 안정화 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 피해가 잇따랐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서 냉각 시스템에 전기를 공급할 예비 전력선이 복구된 데 이어 주 전력선도 복구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원자로 과열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우려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포리자 원전의 주 전력선 4개 중 1개가 복구돼서 우크라이나 전력망으로부터 원전으로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또한 “3개의 예비 전력선은 다시 예비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4개 주 전력선 중 이번에 복구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아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IAEA는 지난 13일 예비 전력선 3개를 모두 복구하는 등 원전 냉각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를 크게 줄였다.

원전은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를 냉각할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한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원자로 과열로 핵연료봉 다발이 녹는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자포리자 원전의 6개 원자로는 포격 피해 우려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마지막까지 가동하던 원자로 6호기도 안전을 위해 ‘냉온 정지’(cold shutdown) 상태로 전환한 채 운전을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전 시설에서 최소한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력이 필요한데, 최근 예비 전력선에 이어 이번에 주 전력선까지 복구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IAEA는 추가 포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 일대를 비무장 안전구역으로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중국, 2025년 우주관광 서비스 예상

좌석당 가격 4억~6억원

중국의 한 우주기업이 이르면 2025년 우주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과학원(CAS)에서 분사한 기업인 ‘CAS 스페이스’의 설립자인 양이칭은 최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민간 우주 분야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시장 원리를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관광 가격은 한 좌석당 200만~300만 위안(28만6천~43만9천달러, 약 4억~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가격이 영국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최근 제시한 좌석당 45만달러(약 6억2,600만원)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AS 스페이스는 상업용 위성 발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우주로 보내는

계획을 진행해왔다. 현재 우주 관광 서비스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계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양이칭은 “중국의 상업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지식재산권, 인재양성 시스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2015~2020년에 연평균 22.09% 성장했다”며 “10년 안에 미국의 개발 수준을 따라잡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다만 자국의 상업용 우주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로켓과 위성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중국 항공 관련 잡지 ‘항공지식’의 왕야난 편집장은 “현재 성장률을 고려할 때 중국의 상업용 우주 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1천억 위안(약 2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재양성을 비롯해 핵심 기술을 강화하고 로켓 용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의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